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815호 현대불교 25
2010년 12월 22일(음 11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맷돌에도 심봉을 꽃아야 이탈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참 무색한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를 해치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답) 그렇게 말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만 그 말과는 달리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며 만물의 영장이며, 또 바로 진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자유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큰 모터를 돌리려면 전력을 크게 끌어야 하고 쪼꼬마하면 쪼꼬맴게 끌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력을 쓰듯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끌어서 쓸 수 있나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봉을 꽃아야 아래 위가 딱 맞으면서 돌려도 이탈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옵니다. 심봉을 꽃지 않고는 그 맷돌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도 갈려 나올 수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는 심봉을 꼭 꽃아야 이겁니다. 즉, 심봉이 주장자이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뭉쳐 뇌라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게 생산이 돼서 나오니까, 현식을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만 해도 새 쇠가 생산이 돼서 그냥 나오듯이, 그것을 알면 곧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발전소로 화하죠. 용광로였는데 나중엔 자가발전소로 화한단 말입니다. 돌이 아닌 공부 하는 도리가 자가발전소로 다시 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맷돌이라고도 그랬지만, 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알면서, 과거의 숙명통을 알면서 이렇게 전부 그제 한데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제 거기에다가 오는 대로 재료를 놓기만 하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안되는 게 있다 이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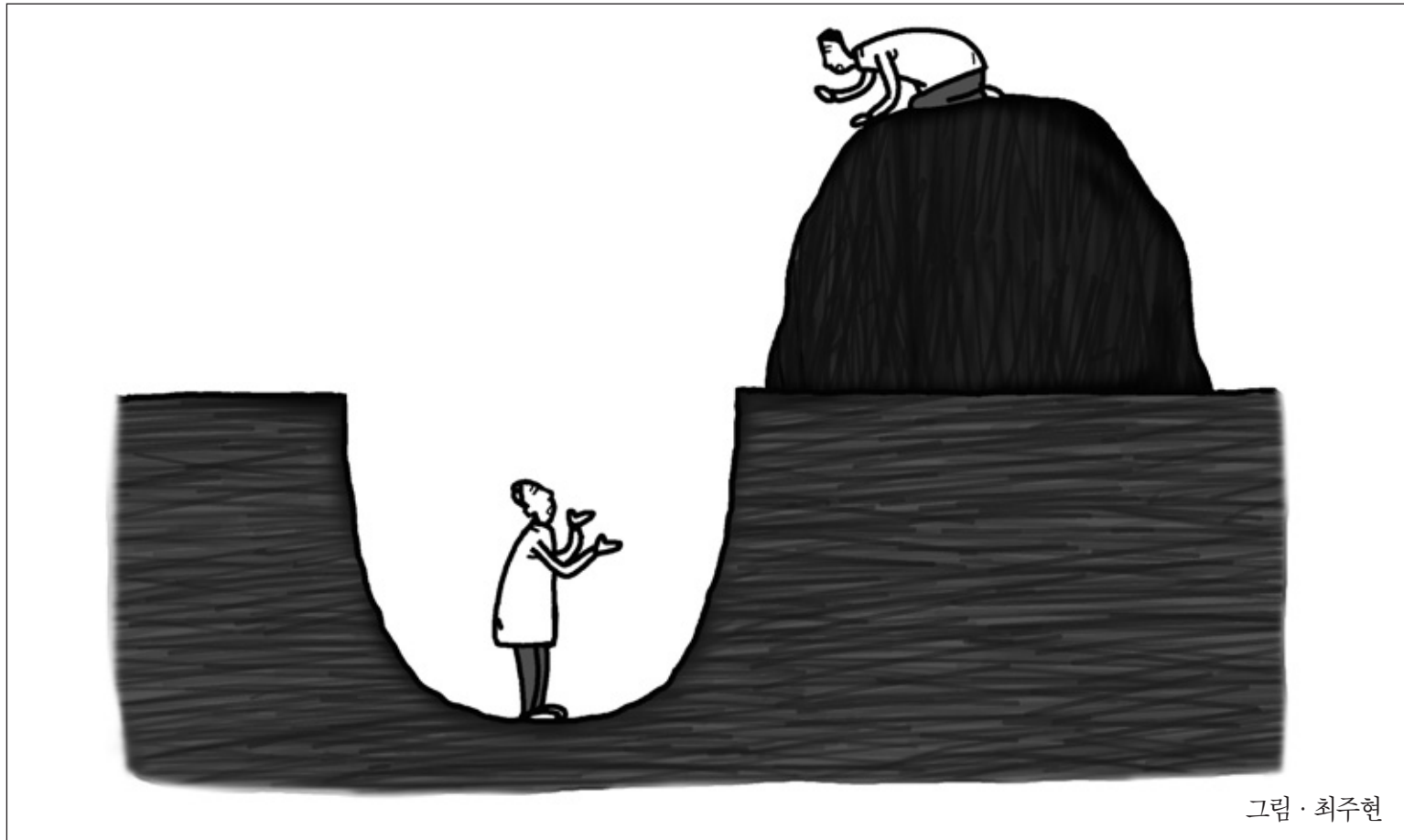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때 '아하! 이거는 안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되게 할 수도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어!' 몸이 아프더라도 30%는 의사가 탄 손을 빌려야 하지만 70%는 우리가 총담해야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주 천지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 돼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살림살이는 천체가 다 인간의 마음 근본에 직결 돼 있다.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전기 가설이 돼 있듯이. 그러니 한 가정에서 "아유, 저놈 저놈! 왜 저렇게 잘못만 하는지,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러한 짓만 하니." 하고 그렇게 속삭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식이 바깥에서 자고 들어오거나 뭐 별짓을 다 하고 들어오더라도 부드럽게 평등한 말을, 부드럽게 말을 해 주면서 이 주인공에다 맡긴다면, 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는 게 가설이 돼 있

고, 엄마라는 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을, 스위치를 올리면 거기도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서 서로가 이익 하고, 내 중생도 이익 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 부처도 한 자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실이 없다면 우리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죽어서 천만에 가지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오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 놔는데 어떻게 구덩이에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아, 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내 주인공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심부름을 잘못했든 잘했든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는다면 어느 누구의 손을 빌려서라도 내놓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이익 하게 하고 이골

어 가고 형성시켰고, 또 병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통 안에서 즉,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기를 건강하게 해 나갈 수도 있거나 또 식구들을 기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식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고부터가 정에 부지깅이 하나라도 늘어 가고, 사람이 되고, 애들도 공부를 잘해서 걱정을 없게 하고 이렇게 가정이 다복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니 몸 건강하게 살 걸, 화목해질 걸, 또는 내가 나를 알 걸 살아 있을 때 이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몸 없으면 부딪침이 없어서 공부 못 해요. 그러면 죽어서 또 태어나고 또 죽어서 또 태어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뽀 소굴이

나 까지 소굴이나 또는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기 직경 줍죠. 내가 살아서 눈을 못 뜨고 귀를 못 뜨면 죽어서도 그 부부지간에 사는, 살 대고 사는 그 의식만 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소굴에나 들어가요. 만약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습이, 그 관념이 배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복에 젓고 그저 욕심에 젓고 아상에 젓고 아만에 젓고 나리는 데 고만 젓고, 하여튼 그냥 젓었어요. 그레 가지고 이 몸뚱이가 자기라는 거죠. 몸뚱이가 뭐가 자갑니까? 자기 운전수, 운전수가 자기고 우리 몸뚱이는 차예요. 비유하자면, 운전수가 끌고 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운전수가 가지고 그레야 일어나지 가진 말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미생물에서부터 수억억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해서 쫓고 쫓기면서 죽고 살면서 이렇게 여기 인간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문) 저는 매일 아픈 곳과 씨름을 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여러 군데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거기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하는 소리가 나면서 순간 어떤 빛을 보게 됐고, 그 순간은 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요 근래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답) 빛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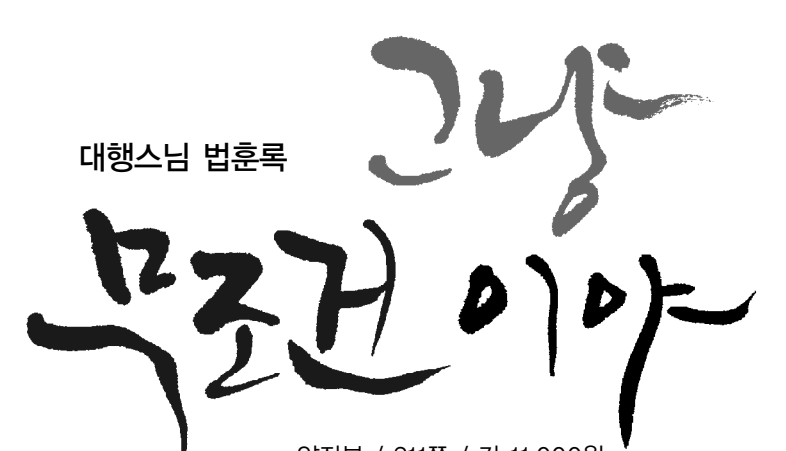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